



동심으로 빛은 사랑의 송편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가 25일 북구 장애인재활센터 대강당에서 연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봉사자들이 송편을 빚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반갑다, 광주 구도심 대형서점

중고도서 취급하는 '알라딘' 광주점 내달 오픈

광주 시내 중심가에 대형 한책방이 등장한다. 총장서림과 삼복서점 등 대형 서점이 사라진 광주 구도심 한 복판에 자리를 잡아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서점으로 유명한 알라딘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옛 삼복서점 자리에 '알라딘 중고서점 광주점'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알라딘은 국내 인터넷 서점 중 교보·예스24·인터파크 다음으로 중고책 등록건수가 많은 대형 온라인 서점이다.

광주점은 알라딘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첫 오프라인 중고서

점을 낸 뒤 신촌·강남, 부산, 경기도 분당에 이어 5번째 여는 오프라인 점포다.

매장 규모 400여평 가량에 보유 도서는 9만종으로, 도서 검색용 컴퓨터와 세련된 인테리어 등 기존 한책방 분위기가 아닌, 어느 대형서점과 다를 바 없게 꾸민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고 서점인 만큼 알라딘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책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집에 있는 책을 가져가 팔 수 있는 코너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초·중·고 참고서, 주간·계간·월간

등 잡지류는 거래하지 않는다. 책값은 판매량과 책 상태, 출간 시기 등을 감안, 적정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알라딘은 2008년 인터넷에서 중고 책 판매를 시작한 뒤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사업을 확장해온 만큼 광주에서도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알라딘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금남로를 택했다"면서 "매장 인테리어 등을 거쳐 10월 말 문을 열고 중고 책 매매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의회 반목 시민은 피곤하다

사사건건 충돌 현안 표류... '건전한 긴장관계' 되찾아야

광주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주요 현안 사업을 놓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시정이 표류하고 있다.

부실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합작투자사업(검교)을 둘러싸고 시의회가 정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시장 발목 잡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부도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발전과 위민(爲民) 행정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민선 5기 들어 2015광주U대회 선수촌 재개발 업체 선정에 관한 특혜시비를 필두로 KTX광주역 진입,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가 파열음을 내왔다.

시의회는 특히, 다음달 국정감사와 내년도 국회예산 확보 등으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제6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다른 현안들을 모두 제쳐놓고 3D컨버팅 한미합작사업인

'검교'특위를 구성, 한 달가량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검교사업과 관련 특위 활동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시장을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한미합작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은 '정책의 실패'일 뿐 법적 책임과 연결되지 않으며, (법적 조치는) 우리나라 헌정사와 지방자치 역사상 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집행부는 특히, 최근 실패로 결론난 '한미합작사업 현지테스트'에 대해 의회 특위위원장이 '미국 측과 광주시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 성공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공언했던 것을 정치공세의 한 예로 들고 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간부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소통의 결실들이 되고 있다.

집행부의 한 국장은 현안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의원에게 '비야냥거리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최근엔 현안질의를 하는 의원과 마찰을 빚어 즉석에서 시장이 제지하는 모습을 연출, 시의회가 해당 국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KTX진입역 문제를 둘러싸고도 마찰을 빚었다. 광주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송정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역구 시의원들은 '광주역에도 진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방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반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차러 반목하면서 현안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라며 "시의회가 정책의 실패를 발미삼아 행정부 문제를 둘러싸고도 마찰을 빚었다. 모순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금호타이어 임단협 5개월만에 합의

27일 노조원 투표

금호타이어 노사가 25일 밤샘협상 끝에 극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지난 4월9일 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여만이다. <관련기사 8면>

금호타이어 노사는 24일 오후부터 제23차 대표교섭에 들어가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25일 새벽 3시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합의서에서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대신 생산장려금으로 일시금 250만원과 월 급여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사측이 제시한 5월 상여금의 150%를 일시금으로 주는 것

과 총액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모든 조합원들에게 고정금액(2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근속연수가 낮은 조합원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또 노사는 각각 5명으로 노사공동조사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해 경쟁사와 동등한 임금과 복지 수준 유지를 위한 조사를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월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대상자들에게 추석 전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퇴직연금제는 12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시간간 법적기준(1만4000시간)에 따르기로 하고, 무급 전임자는 10명으로

하는 등 타임오프 관련 조항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합의서를 채택해 워크아웃 기간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을 유지하되 워크아웃 졸업 즉시 환원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위해 노사가 상호 노력하고,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내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의 행위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내년 예산 342조... 복지분야 97조

내년 나라 살림이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여야는 경제위기와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5면>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

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97조 1000억원으로 4.8% 늘었다. 교육이 49조1000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원(4.0%), 사회간접자본 23조9000억원(3.6%), 연구개발 16조9000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됐다.

주요사업을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많은 58만 9000개 만드는데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으로 3만명 늘린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나눔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디자인하는
2012 호남권 교육기부 박람회)에
초대합니다

2012. 10. 4 (목) - 5 (금) 10:00 - 17:00
김대중컨벤션센터 제3전시장

2012 호남권 교육기부 박람회
HONAM AREA EDUCATION DONATION FAIR 2012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전라북도교육청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광주광역시
KBS
광주日报

행사 일정

개막식 10. 4 (11:00 ~ 12:00)

- 식전 공연
- 개회 및 내빈 소개
- 축사·격려사
- 축하 공연
- VIP 전사부스 관람

전시체험 10. 4 ~ 10. 5 (10:00 ~ 17:00)

- 교육기부 매칭센터(교육기부 접수)
- 교육기부 프로그램 체험 (50여개 기관·단체)

부대행사 10. 4 ~ 10. 5 (10:00 ~ 17:00)

- 교육기부 재능 강연
- 힐링콘서트 수시 운영
- 학부모나눔미담 운영
- 학생기자단 운영